

혁신·도전 그리고 역발상 처자식 빼고 다 바꾼 삼성, 몸집 40배 커졌다

“삼성을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지난 1987년 12월 1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회장직에 오르면서 던진 목표다. 이로부터 25년이 지난 2012년, 이 회장은 삼성그룹의 매출을 1987년 9조9000억원에서 383조9000억원으로 40배 늘렸다. 시가총액 1조원에서 303조원으로 300배 넘게 끌어 올렸다. 취임 당시 약속을 실적으로 증명했다. 삼성은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기업을 넘어 글로벌 리더기업 반열에 올랐다. 이 회장은 혁신, 도전, 글로벌을 강조하는 경영원칙으로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이 결과 올해 인터브랜드가 선정한 전 세계 브랜드 순위에서 삼성은 9위를 기록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와 LCD, TV, 스마트폰, LNG선 등 삼성이 만든 월드베스트 제품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회장은 만족하는 법이 없다. 성장을 하면서도 위기 대응을 강조한다. 시장변화를 주도하자는 주문도 끊임없이 해왔다. 새로운 수증사업 발굴에도 관심이 많다. 이 회장의 혁신과 도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지금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일류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리기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
-경영 복귀(2010년 3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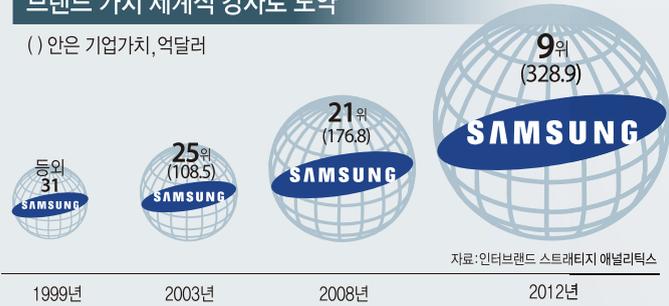
삼성이라는 이름을 반환하라. 먼저 구덩이에 처박힌 것에 어떻게 삼성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는가
-미국 베스트바이 방문(1993년)

200~300년 전에는 10만~20만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20만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인재경쟁의 시대, 지적 창조력의 시대다.
-인재전략사장단 워크숍(2002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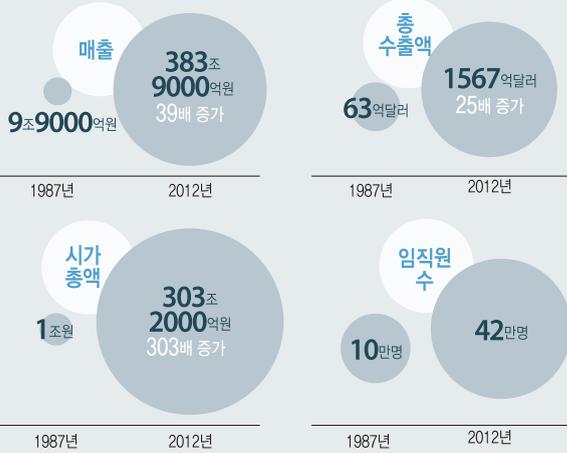
소프트웨어, 디자인, 서비스 등 소프트기술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필요한 기술은 약착같이 배워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선진제품 비교 전시회 참관(2011년 7월)

브랜드 가치 세계적 강자로 도약

() 안은 기업가치,역달러



1987년 약속 지켰다 (취임 후 실적 변화)



글로벌 스마트폰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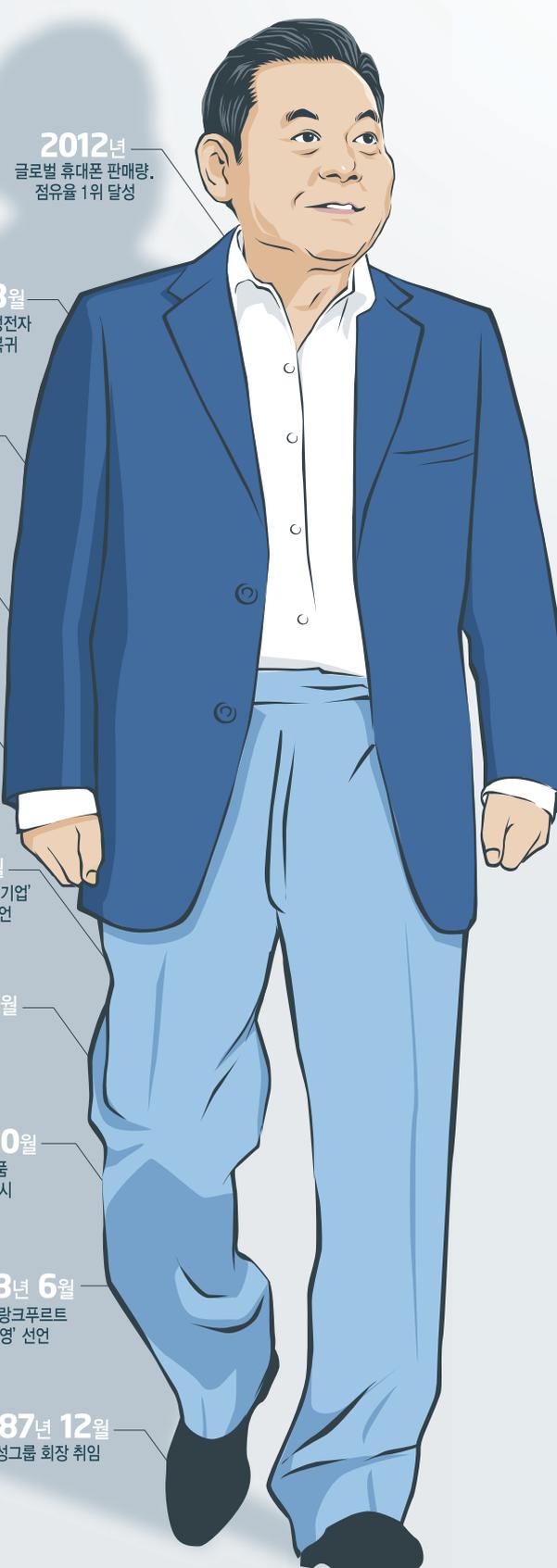
글로벌 TV시장 점유율



삼성 월드베스트 19개 제품

☑ 품목 % 점유율 ⌚ 등록시기

	브라운관 TV % 22.1% ⌚ 2006년
	LCD모니터 % 15.0% ⌚ 2006년
	D램 % 37.4% ⌚ 1992년
	낸드플래시 % 39.5% ⌚ 2003년
	모바일AP % 66.5% ⌚ 2009년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 % 14.5% ⌚ 2002년
	스마트카드 IC % 60.0% ⌚ 2007년
	휴대폰용CIS (이미지센서) % 27.7% ⌚ 2008년
	와이브로 % 35.0% ⌚ 2006년
	스마트폰 % 19.1% ⌚ 2011년
	LCD패널(대형) % 25.7% ⌚ 2002년
	LFD(대형 모니터) % 15.0% ⌚ 2009년
	LCD용 기판유리 % 28.0% ⌚ 2008년
	리튬이온 2차전지 % 23.7% ⌚ 2010년
	반도체용 기판 % 18.7% ⌚ 2005년
	중소형 AM OLED 패널 % 96.3% ⌚ 2009년
	중소형 패널 전체 (OLED+LCD) % 19.1% ⌚ 2010년
	드릴십 % 48.0% ⌚ 1996년
	LNG선 % 28.4% ⌚ 2003년



2012년
글로벌 휴대폰 판매량
점유율 1위 달성

2010년 3월
퇴진 2년 만에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 복귀

2010년 1월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 완공

2008년 4월
삼성 특검에 따른
경영 쇄신으로 퇴진

2004년 11월
세계 최초 1Gb '원앤드
퓨전 메모리' 개발

2003년 6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비전의 신경영 2기 선언

1998년 3월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준공

1994년 10월
애니콜 첫 제품
'SH-770' 출시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

1987년 12월
삼성그룹 회장 취임